

투혼 빛난 패배... '2020 도쿄행' 희망을 봤다

(도쿄 올림픽 출전)

대등하게 맞섰지만 결정적 골 침묵
후반 심서연 핸드볼 파울 불운 겹쳐
오늘 벤투호 일본 상대로 '복수혈전'



'승리 벨'과 '우승 벨'은 올리지 못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의 대한민국 여자축구는 잘 싸웠다. 딱 한 번의 실수가 안타까웠을 뿐이다.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17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영원한 라이벌' 일본(10위)과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최종전(3차전)에서 0-1로 졌다. 후반 막판 심서연(인천 현대제철)의 핸드볼 파울로 내준 페널티킥이 빠졌다.

1승1무1패의 한국은 같은 날 대만을 1-0으로 누른 중국과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 앞서 일본(2승1무)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준우승 상금은 4만5000달러(약 5400만 원). 일본전 열세로 계속됐다. 최근 5경기(2무3패)째 승수를 쌓지 못한 한국은 4승10무17패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국과 1차전을 0-0으로 마친 뒤 대만과 2차전을 3-0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상승세를 일본전으로 이어가려 했다. 대만전과 일본전 사이 휴식일이 하루였으나 벨 감독은 두 경기 베스트11을 전원 교체해 주축들의 체력을 비축했다.

실제로 중국전과 이날 라인업이 동일했다. 여민지(수원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손화영(창녕WFC), 최유리(구미 스포츠토토)가 전방에 배치된 4-3-3 포메이션을 구축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최유리(왼쪽)가 17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2019 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한수 위 전력의 일본을 상대로 접전을 펼쳤지만, 0-1로 석패했다. 부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 한국은 90분 내내 세계 최강 반열의 일본과 대등하게 맞섰다.

직선 패스를 가미한 과감한 공격과 빠른 압박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만 방점을 찍지 못했다. 전반전 여민지가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데 그친 한국은 후반 초반 최유리와 여민지의 연속 슈트로 분위기를 띄웠으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후반

2분 여민지 대신 강채림(인천 현대제철)을 투입한 뒤에도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대만을 9-0, 중국을 3-0으로 완파한 일본은 '캡틴' 이와부치 마나(고베 아이나)와 하세가와 유리, 도쿄 마요(이상 닛폰TV 벨레자)가 조기 귀국해 완전체 전력이 아니었으나 경기 막바지 얻은 천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편,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18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운명의 한일전을 통해 대회 3연패, 통산 5번째 정상 노린다. 양국이 나란히 2승을 했지만 우리가 골 득실(일본 +6, 한국 +3)에서 밀려 2위를 마크 중이다. 부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축구

3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대구 한희훈 김준엽 인천 유니폼 입는다

달구벌의 '캡틴'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다. K리그1 대구FC에서 든든한 행님 역할을 했던 베테랑 수비수 한희훈(29)이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K리그 복수의 관계자들은 17일 "최근 대구와 결별을 확정된 한희훈이 인천으로 향한다. 꽤 오래 전부터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졌고,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인천이 영입을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본래 포지션인 중앙수비수 이외에도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한희훈의 장점은 헌신과 열정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초록 그라운드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는 핵심 자원이다.

2013년 에히메FC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한희훈은 도치키FC(이상 일본)을 거쳐 2016시즌 K리그2 부천FC로 향하며 본격적인 K리그 여정에 나섰다. 2017시즌 대구로 향한 그는 K리그 통산 127경기(5골)에 출격했다. 올 시즌 부상 여파로 많이 출전하지 못했지만 22경기에 나섰다.

한편, 인천은 한희훈과 함께 대구의 또 다른 베테랑 수비수 김준엽(31)의 영입도 동시에 결정했다. 2010년 제주 유나이티드를 시작으로 광주FC~경남FC~아산~아산 무궁화~부천FC~대구에서 활약한 김준엽은 올해 K리그1 22경기에서 한 차례 어시스트를 올렸다. K리그 개인통산 기록은 191경기, 7골·12도움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슈팅도, 돌파도 케인보다 SON"

FIFA, 전반기 토트넘 MVP 손흥민 선정

득점기회 창출·슈팅·돌파 부문 1위
합산 점수 82점으로 토트넘 내 최고



손흥민

치른 데이터를 종합해 9경기 이상 출전한

국제 축구 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는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이달 12일까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지표들 17일(한국시간) 공개했다.

축구 데이터 전문업체 옵타프로가 제공한 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삼았다. 볼 소유권 회복, 볼 배급, 돌파, 득점 기회 창출, 슈팅, 상대 공격 저지 6개 부문에 걸쳐 수치화했다.

손흥민은 합산 점수에서 82점을 받아 토트넘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득점 기회 창출과 슈팅, 돌파 등 3부문에 팀 내 1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흥민은 득점 기회 창출 85점, 슈팅 72점, 돌파 81점을 획

득했다. 볼 배급은 53점, 볼 소유권 회복과 상대 공격 저지는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그의 동료 킬레 알리는 합계 77점, 해리 케인은 합계 75점을 얻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컵 등 22경기에 출전해 10골을 넣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7개의 도움을 올려 이 부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등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내고 있다. 감독 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토트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연말 모임으로 지친 몸 동충하초로 건강하게!

흑충초(동충하초)의 특징

천연 함양제 (코디세핀) 미국식품의약품(FDA)에서 백혈병 회귀의약품으로 '천연 자가 치유 성분'입니다.	면역 기능 (총초다당)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저항력으로 자연치유 효과가 있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증강 운동능력향상 (단백질) 근력증강 및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많은 운동선수들의 필수 섭취성분 1순위로 꼽힙니다.	수면 연장 (아미노산) 생명의 근원 아미노산은 절음유지의 비결 질병예방에 탁월한 천연복합성분입니다.	피부 미용 (아데노신) 식약처에서 인증한 주름 기능성 원료인 아데노신은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	---	--	--

흑충초 재배과정

흑충초는 균주 채집부터 모든 과정마다 중금속,농약,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보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특별재배 하고 있습니다.



흑충초는 일반 동충하초와 달리 자실체가 배지 안에 자라는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흑충초에는 20700ppm의 코디세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시험성적서)

흑충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흑충초(동충하초)는 농림축산식품부 "GAP 우수관리인증" 업체로 좋은 재료만 엄선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용합니다.

www.badam.co.kr
고객센터 02) 356-1388

NAVER 바람이 담다 검색

1+1 특가행사 소중한분께 좋은선물 하세요!

흑충초 黑蟲草

정상가 500,000원 → 250,000원

1인기준 : 1박스당 2개월분 총 4개월분